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투약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올림픽 양궁 첫 3관왕 달성... 기뻐하는 안산



여자양궁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대한민국 양궁 대표팀 안산이 지난달 30일 일본 도쿄 유메노시마 양궁장에서 열린 2020 도쿄 올림픽 양궁 여자 개인전 시상식에서 3관왕을 표시하며 기뻐하고 있다. <관련기사 16면>

전북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특별프로젝트

자동차산업 종사 근로자에 최대 120만원 복지포인트

익산·김제·완주 등 3개 시군내 기업 종사자 대상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신청접수... 고용보험 가입 필수
내달부터 분기별 30만원씩 지역사랑카드로 지원

전북도(전북고용안정사업단)가 자동차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자동차산업 근로자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을 펼친다.
이는 군산발 자동차산업 침체로 이어진 인근 익산, 김제, 완주 지역의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 중인 전북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이하 고선패사업)의 특별 프로젝트이다.
도는 그간 고선패사업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근로자 복지증진 등을 지원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더 좋은 일자리' 60여억원을 별도로 조성했다.
이에, 1단계 시범사업으로 '근로자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고선패사업 30일 밝혔다.

먼저, 올해 21억원을 투입해 익산, 김제, 완주 지역의 자동차 관련기업 근로자에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한다.
오는 9월부터 3개 시·군 각 600여명, 총 1,800명에게 매 분기별 30만원을 지역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익산, 김제, 완주에 거주하며, 근로 중인 만 18세부터 만 60세 이하 근로자다.
또, 김제는 50인 이하 익산과 완주는 25인 이하 근로자가 근무하는 자동차 관련기업(자동차산업 분류코드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 재직해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도 필수 조건이다.
유사 지원사업인 전북청년수당 지원 자격이나,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존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지원받지 못한다.
신청기간은 2일부터 31일까지이고, 접수는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이며, 전북 고용안정사업단 누리집(www.jbwk.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신청서류는 재직증명서, 재직기업 고용보험 납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을 지역사랑카드 계좌번호 등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고용안정사업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전화(063-225-1399 혹은 070-4297-9473)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도는 복지포인트 지원효과를 분석해 향후 확대 운영하거나, 의견수렴 등을 통해 2단계 사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이종훈 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자동차산업 근로자들에게 과감한 복지혜택을 제공해 근로자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향후 지원대상을 확대해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폭염피해 최소화... 전북도, 농업재해대책상황실 운영

국지성 집중호우·태풍 피해예방·사전 조치도 지속 추진

전북도가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도는 농산유통과를 중심으로 초동 대응, 농업, 축산, 수리시설 분야로 구성된 농업재해상황실에서 농진청, 농협,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긴밀한 공조 체계로, 재해예방 정보 제공 및 피해상황 파악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폭염과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농산물가격 불안정 농작물 생육저하, 가축 폐사 등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분야별로 피해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수급분야에는 계속되는 폭염에 따른 생육 부진과 계절적 수요 영향으로 상추, 시금치, 깻잎 등은 평년에 비해 가격이 높고 배추, 무, 대파 등은 생산량 및 재배면적 증가로 가격 약세를 보이고 있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수급대책과 더불어, 통합마케팅 조직 및 생산자 단체에 탄력적 출하를 유도하고, 농산물 산지 유통 관련 사업 240억 원 수급 안정 관련 사업 685억 원을 지원해 농산물 가격 안정에 힘을 보탬 계획이다.
또, 축산분야에서는 폭염에 취약한 닭 사육 농가를 포함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폭염대비 상황을 지속 점검하며,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가축

사육환경 개선사업 등 총 16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아울러, 피해대책분야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지기동반, 농촌진흥청 등의 협조를 통해 폭염대응 현장기술 컨설팅, 가축·농작물 관리 요령 등을 제공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피해복구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보험가입농가 피해 시 추징 보험금 50% 가산금 및 잔여 보험금을 신속 지급하고, 미가입 농가의 가축 농작물 피해 시는 어렵기축입 식비, 경종농가 대파대, 농약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전북도는 폭염 뿐만 아닌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등에 따른 피해예방 및 사전 조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유호상 기자

18~49세, 내달 26일부터 백신접종

도, 8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 발표
17일부터 지자체 자율·맞춤형 접종 실시

전북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추진단(단장 최훈 행정부지사)은 최대 많은 도민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8월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지난달 30일 정부의 코로나19 8~9월 예방접종 시행계획 발표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전도민 70% 이상 1차접종을 목표로 8월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8월 이후 접종은 18~49세 연령층을 최우선적으로 집중하며, 접종사각지대에 대한 맞춤형 접종대책을 수립해 지원하고, 고령층의 중증·사망 위험감소를 위해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시행한다. 또한, 지자체 자율접종 추진으로 접종 사각지대 해소 및 신속한 방역상황 대응을 추진한다.
◇40대이하(18-49세) 연령층 = 예약은 18~49세(70만316명)를 대상으로 10부제에 따라 9일부터 18일까지 개별 사전예약 후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전예약 10부제는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진행되며, 접종일시와 의료기관별 예약 가능한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해 접

종의 편의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
접종은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되며, mRNA 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을 통해 위탁의료기관 또는 예방접종센터 중 본인이 희망한 기관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지자체 자율접종 = 전북도의 특성 및 방역 상황을 고려해 14개 시·군 의견 및 지역협의체를 거쳐 최종 선정된 19개 대상군 중 9개 대상군 2만4,000여명에 대한 1회차 접종을 14일까지 실시한다.
2회차 자율접종은 6만8,000명을 대상으로 4일 오후 8시부터 6일 오후 6시까지 사전예약 진행 후 예방접종센터에서 mRNA 백신으로 17일부터 9월 11일까지 집중할 계획이다.
전북도 자율접종 추진대상군은 ▲대중교통종사자 ▲민원업무공무원, ▲환경미화(소독업), ▲학원종사자, ▲장애인 ▲자원봉사자, ▲이미용 및 목욕장 종사자, ▲외국인근로자 ▲금융업·우체국 종사자 등이다.
◇맞춤형 접종대책 = 3분기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예방접종이 본격 추진되나, 사회적·신체적 제약 등으로 접종 참여가 어려운 대상에 대한 맞춤형 대책 마련에 모두가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방역 수칙 자율 이행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이 높은 심장·간 장애인 집단생활로 감염위험이 높은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을 5일부터 시작해 예방접종센터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26일부터 mRNA 백신으로 접종을 실시한다.
또한, 중증질환으로 현재 의료기관에 입원중이거나, 항암치료 등을 위해 수시로 외래를 방문하는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해서도 접종편의를 위해 자율접종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에 한해 8~9월 중 mRNA 백신으로 의료기관 자율접종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노숙인, 입국여력이 없어 일반 국민 사전 예약 시 예약이 불가능한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서도 대상자가 보건소에 현장 방문해 접종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 백신 또는 mRNA 백신으로 시행되고, 대상자들이 주로 방문하는 시설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고령층 미접종자 접종 = 60세 이상 미접종자 중 75세 이상(21,132명)은 수시로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60~74세 이상은 2일 사전예약을 시작으로 5일부터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을 실시한다. /유호상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주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